정율성 사진전

음악제 부대행사 27일 개막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정율성(1914~1976)을 기리는 사진전이 정율성 음악제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27일 개막한다.

광주시는 정율성 사진전을 27일부터 10월21일까지 광주 숭일고등학교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9곳에서 릴레이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첫날 전시회 장소인 숭일고는 정율성이 숭일소학교를 다녔던 점을 고려해 선정됐다.

'2007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정율성 선생 부부의 사진과 1951년 베를린 청소년 축제 참가 모습이 담긴 사진, 정율성 작품 음악회 사진 등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사진 등 5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정율성의 숭일고에서 시작해 1주일 간격으로 풍암중학교와 대반초등학교, 전대사대부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청, 살레시오여중, 월드컵경기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바다전쟁' 중재협상 결렬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 경계분쟁〉

전남-경남도 모두 해수부 중재안 거부…입장차 재확인

전남도와 경남도 간 극심한 해상 경계분쟁을 빚고 있는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과 관련,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시도된 분쟁 당사자 간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전남도는 24일, 서울 해수부 어업자원국장실에서 전남도와 경남도, 그리고 해수부 등 3자가 모여 '전남육성수면 지정 및 경남 연구·교습어업 실시 공고관련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으나 서로 입장만 재확인한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중재에 나선 해수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 측에 '내년 2월 종료되는 육성수면 지정을 조기에 끝내줄 것'을, 그리고 경남도 측에는 '최근 지정한 연구·교습어업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각각 요청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문제가 된 해역은 전남도 관할로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육성수면 지정이 종료되는 내년 2월께 또다시 재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남도 역시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구·교습해역 지정 역시 취소하지 않겠다"며 해수부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육성수면 조기종료'는 전남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감사원에서도 해당 해역이 전남도 관할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연구·교습수역을 지정한 경남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육성수면은 지난 2005년 2월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수시 금오도 동방 9마일 해상 2천816ha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키조개 치패 채취를 목적으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이에 반발해 지난 26일 육성수면 인근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 6천ha를 연구·교습어업 해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 수해 374억어치 자재·장비 지원

정부는 북한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품과는 별도로 시멘트, 철근, 트럭 등 자재와 장비 374억원 상당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부분의 물량을 당장 확보할 수 있으며 국회보고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다음달 중순부터 복구 자재 및 장비를 북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북한수해지원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피해상황과 지원요청, 우리의 가용재원, 물품재고량 등을 감안해 이같은 지원계획을 결정했다"면서 "수송비 등 부대비용은 50억 내지 1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

주민등록 인구의 2%…中·美·베트남·필리핀·태국 70% 차지

불법 체류 22만명

단기, 장기, 불법 등을 막론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4일 현재 100만25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우리 사회가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2만명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광주(141만명)와 전남(193만명)에 사는 외국인은 1만784명, 1만6천312명으로 각각 총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 이는 지난해 7월(86만5천889명)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38만6천972명)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중국동포 26만6천7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1만7천938명(12%), 베트남 6만4천464명(6%), 필리핀 5만264명(5%), 태국 4만2천792명(4%) 등 상위 5개국이 70% 가량이었으며 뒤이어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단기 체류자를 빼고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72만4천967명이며 이중 산업연수생이 40만4천51명, 결혼이민자 10만4천749명, 외국인 유학생 4만7천479명 등이다.

거주지는 지역별로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수도권(64.5%)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불법 체류자는 1997년 14만8천48명에서 올해 22만5천273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체 외국인의 20%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0만1천984명(한국계 3만7천573명), 필리핀 1만4천749명, 베트남 1만4천333명,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순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설

지역 제조업 불황 성장동력 약화 우려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의 경영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제조업체의 실적은 호전된 가운데 지역 제조업만 악화돼 지역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경영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다. 부채가 늘어난 반면 자기자본 비율과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등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 모두 악화됐다. 특히 대기업과 수출기업, 석유정제, 자동차 등 지역 주력업종의 부채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수익성은 크게 저하돼 지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 제조업체들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실적 호전과 더불어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지역 제조업만 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 기반과 사업환경이 그만큼 척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이다. 일자리 창출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지역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제조업의 경영 악화는 성장 잠재력 위축과 고용 축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가 등을 안정시켜야 함은 물론 예산도 물류비를 줄이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 아직도 뿌리깊게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반 기업 정서 해소 등 기업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 원칙 지켜야

정부가 척추뼈 검출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한달여 만인 오는 27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측의 해명과 보완대책을 검토한 결과, 검역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수출은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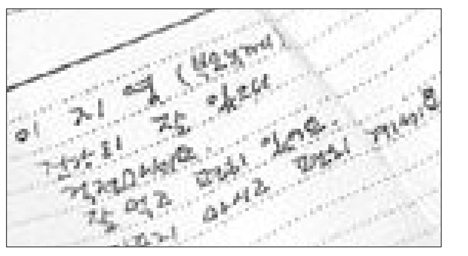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한정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에 밀려 쇠고기 수입검역을 서둘러 재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등을 앞두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뼈를 확인하고도 '수입중단' 대신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전례없이 미국측에 보름 이상의 해명 기회를 준 뒤 단 한 차례의 미국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검역중단을 해제하고 말았다. 무원칙과 편법 등으로 미국을 '특별대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의 조치와도 대비된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미국산 송아지 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자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이후 6개월간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우리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한미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수입 협상에서 더 이상 '저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석방 양보한 이지영씨 "걱정 마세요" 쪽지



"이지영(부모님께). 건강히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잘 먹고 편히 있어요. 아프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탈레반에 납치된 다른 인질들에게 석방 기회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영(여·36)씨가 자필로 쓴 쪽지〈사진〉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이 쪽지는 이지영씨와 함께 있다 먼저 풀려난 김지나·김경자씨가 석방 직전 전달받아 갖고 온 것으로 이날 오후 8시께 이씨의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이씨의 '편지'는 아랍어 글귀가 인쇄된 흰 색 바탕의 노트 조각에 간결한 글씨체로 5줄로 짧게 적혀 있다.

그동안 쪽지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 피랍자 가족모임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딸의 메모를 전해 받은 이씨의 어머니 남상순(66)씨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을 참지 못하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지난달 30일 국내언론을 통해 육성이 공개된 바 있는 이지영씨는 지난해 말 아프간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교육 및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이번에 피랍된 봉사단의 현지 인솔자 중 한 명으로 합류했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과 맞교환을 요구해 온 (8인의) 탈레반 수감자 중 한 명인 '퓨마' 사령관이 지난 주 폴란드 군에 붙잡혀 억류돼 있다고 폴란드 PAP 통신이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슈치글로 장관은 아프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국제안보지원군(ISAF)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폴란드군이 지난 16일 아프간 동부 지역에서 '퓨마' 별명의 탈레반 사령관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다고 PAP 통신이 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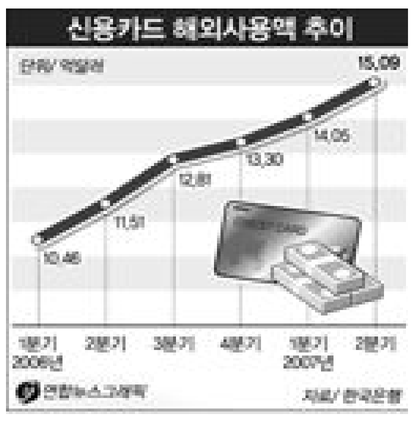
위로의 포옹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석방을 호소하고 있는 피랍자 가족들이 24일 오전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회의가 열린 서울 신라호텔에서 파키스탄 의원들을 만난 가운데 파키스탄 여성의원 자하나 바로츠씨가 피랍자 송병우씨의 어머니 나채숙씨를 포옹하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해외사용 사상 최고

상반기 사용액 32% 급증…2조 7,000억원 달해

해외 여행객의 급증과 환율 하락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해외 사용금액은 15억900만달러(한화 약 1조4천억원)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1%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종전 최고치였던 1분기의 14억500만달러와 비교해서도 7.4%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해외 카드사용액은 29억1천400만달러(약 2조7천억원)로 작년 동기에 비해 32.6%나 급증했다.

2분기중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은 234만8천명으로 39.3% 증가했으나 1인당 사용금액은 643달러로 5.9%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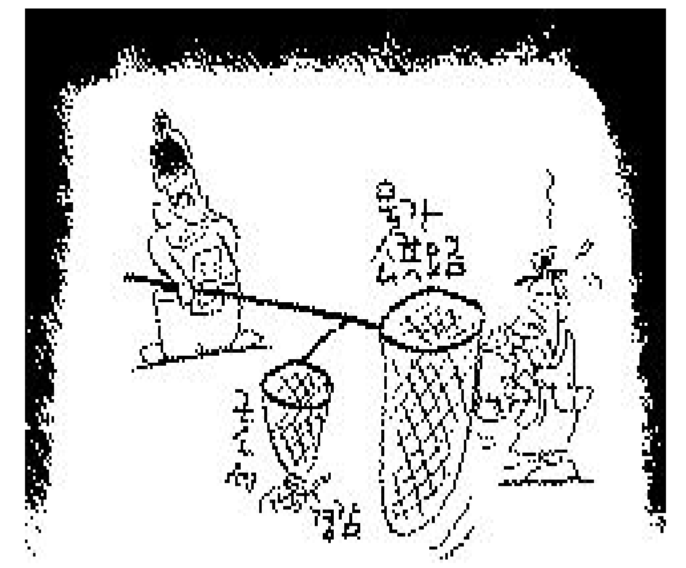
한은은 "2분기중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가 316만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8.0% 증가한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작년 2분기에 950.41원에서 올해 2분기에 929.26원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2분기 사용실적 가운데 신용카드가 12억1천900만달러로 80.7%, 직불카드가 2억9천100만달러로 19.3%를 차지했다.

현금카드 겸용으로 해외에서 사용 즉시 국내 결제계좌에서 원화예금이 차감되는 직불카드는 2년전 해외사용액 비중이 1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20% 선까지 육박했다.

한편 2분기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5억7천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했으며 사용자 수도 125만1천명으로 11.9% 줄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썩 반갑지 않은 이유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파업 생산중단

기아차는 화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파업으로 이 공장의 생산이 중단, 기아차 광주공장 파급 여부가 주목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화성공장이 도급사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어제(23일) 부분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데 이어 오늘(24일)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소속사 사용자들과의 집단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쎄라토, 로체, 오피러스, 쏘렌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정부 "日 총리 전쟁책임 부인 발언 유감"

정부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태평양전쟁 전범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판사를 칭송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가 최근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극동군사재판 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인도 국회에서 행한 연설 중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유일하게 A급 전범 25명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던 인도 국적의 팔 판사에 대해 "극동군사재판에서 기개 높은 용기를 보인 팔 판사는 많은 일본사람들로부터 지금도 변함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